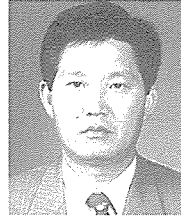


무제



김익래

지난 10여년간 정보 통신업계는 급격한 변화를 겪어왔으며 그 변화의 속도는 더욱 가속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메인 프레임 시스템에서 운영되던 컴퓨팅 환경이 클라이언트 서버 환경으로 변하고 있으며 오디오, 비디오, 컴퓨터 등 단말 기능 개념에서 멀티미디어 개념으로 옮겨가고,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전자상거래, 가상대학 등 네트워크 기술의 발달과 함께 혁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86년 설립 이래 “컴퓨터 황무지에 소프트웨어 산업을 개척한다”는 이념으로 RDBMS와 멀티미디어, 인터넷 분야에 투자와 노력을

약력 : • 75~79 한국IBM(주) • 80~85 (주)큐닉스 정보기수사업본부장 • 86~현재 (주)다우기술 대표이사/사장겸 (주)다반테크 사장

기술인 결과 나름대로 컴퓨터산업에 일조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으며 기술 변화에 발맞추어 인터넷에 기초한 전자상거래, 교육정보화, 그룹웨어 등등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분들께 선택의 폭을 넓혀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개방과 변혁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컴퓨터 산업분야에 있어서는 더욱 빠른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특성의 개방과 변혁의 사회에서는 기존의 고정 관념을 과감히 탈피하여 새로운 아이디어와 적극적인 사고로 혁신을 주도해야 하며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정보 활용에 민감하지 못하면 나오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다우기술은 10 여년 이상의 연륜으로 컴퓨터업계의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기술개발에 투자하지 않는 회사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당사는 자체 연구소를 운영하면서 87명의 석사급 이상 연구개발 인력을 보유하고 매년 매출액의 10%이상을 연구개발비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실리콘밸리 지사에 연구인력을 파견하여 선진기술 습득에 전력하고 있으며 프로젝트 개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각 구성원 각자의 영역에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 만큼 조직의 자율성과 팀웍을 생명처럼 여기는 기업입니다. 이 자율적인 조직운영이 오늘의 다우를 있게 한 자양분일 것입니다. 초일류 기업은 끊임없는 자기 혁신과 창조의 노력으로 무한한 가능성의 장을 열어갑니다. 당사는 그 동안의 기술 축적과 경영기반을 토대로 다가올 21세기를 적극적인 자세로 맞이할 것입니다. 또한 조직정비와 경영합리화로 경영 구조의 현실화를 추진하고 다우기술의 고유 문화를 정착시키고 미지의 분야를 개척하고 개척자 정신, 또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한다면 국제적인 정보 산업의 선두 주자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끝으로 (주)다우기술을 이끌어 주시는 고객 및 외부 인사들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합니다. '99년은 IMF 체제하에서 나오는 어려운 숙제와 현안들이 가로막혀 있지만 젊고 패기있고 슬기롭게 이 고난을 이겨 나아가야 하겠습니다.